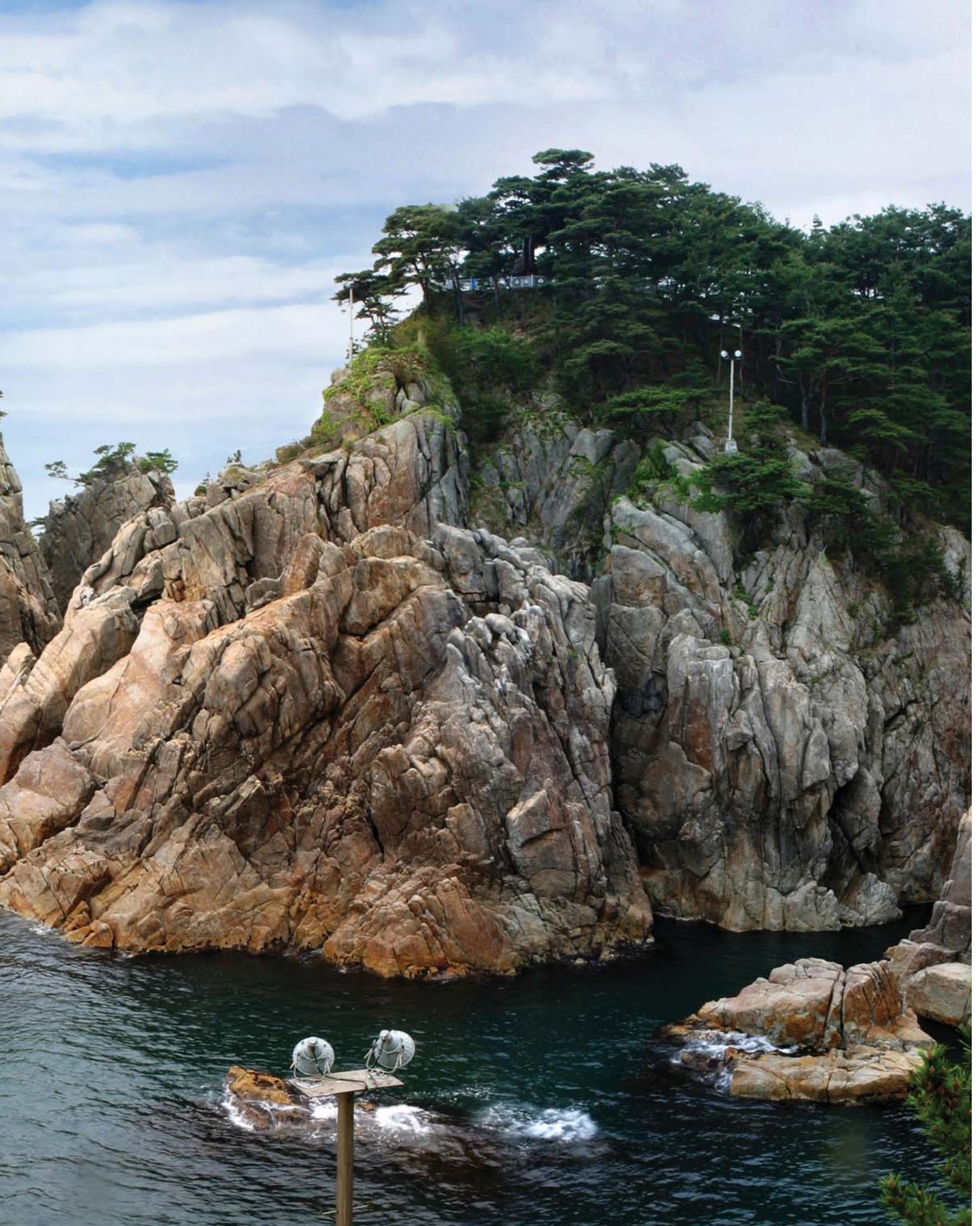


미지의 세계 '섬'으로 가는 여행

島島하게 섬으로 떠나라

여행의 백미는 섬 여행이다. 파도치는 바다 저 편에 외롭게 떠있는 섬. 그곳에 가는 동안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설레임이 있다. 누구나 만져보고 싶지만, 쉽게 만져지지 않는 섬,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섬' 여행으로 올 여름휴가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글/사진 자유기고가 이창현



마지막 낙원 신안 ‘우이도’

한국에서 유일하다는 거대한 모래언덕을 가진 섬, 우이도. 전남 신안 앞바다에 떠있는 우이도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43km쯤 떨어져 있는 섬이다. 섬의 형상이 황소의 귀와 같다 하여 ‘소구섬, 우개도, 우이도’라 부르게 되었으며, 모래언덕으로 더 유명하다.

우이도에는 차도 없고 찾길도 없으므로 산책삼아 걸어 다니기 좋다. 우이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상산’인데,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뺨뺨이 들어찬 정상에 오르면 최치원 선생이 바둑을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 바둑판의 흔적이 남아있다. 섬 주위 해안으로 펼쳐진 기암절벽 또한 절경으로 우이도의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현지에서 배를 빌어 타고 유람할 수도 있지만 우이도의 해안선을 따라 운항하는 여객선을 타고 성촌리, 돈목리, 예리, 동리, 서리, 진리 등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우이도의 낚시는 조황이 꾸준하여, 봄에는 4월초부터 5월 말까지, 가을에는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감성돔과 농어가 호황을 이룬다. 주요 낚시 포인트로는 건네끝, 나릿바위, 대린지끝, 하나지끝, 농께(농어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등이 있다.

▶ 문의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3-2171

■ **찾아가는 길** 섬사랑6호가 목포항에서 도초항을 거쳐 우이도까지 하루 한 번 운항한다. 특송기간인 7월 21일~8월 15일에 아침 7시, 그 외의 기간에는 낮 12시 10분에 목포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한다. (061-242-1231)

수려한 2km 해상풍치 자랑하는 진도 ‘관매도’

전남 진도군 서남쪽에 위치한 관매도는 멀고 외딴 섬이다. 진도만 해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5시간 30분쯤 걸리는 외진 곳인데, 관매도는 여기서 자동차와 배를 타고 1시간 20여 분을 더 가야 한다. 자칫 배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진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관매도는 여행자의 피로를 보상하고도 남을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길이 두 배에 이르는 모래 해변과 3만여 평의 해상숲이 장관을 이뤄 여름철 피서객들을 유혹한다. 관매도는 진도 팽목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1시간을 달려야 닿는다. 배가 팽목항을 벗어나면 다도해의 비경이 여행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관매도 가는 뱃길은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다. 관매도 인근 바닷물은 서해 연안의 탁한 황색과 달리 비취색을 띤다. 눈이 시릴 정도다. 맑고 깨끗한 바다 곳곳엔 툫양식장이 자리잡고 있다. 진도는 파도가 거칠고 질산염 등 영양염류가 많아 전복과 같은 종패양식장이 발달했다고 한다. 요즘 관매도를 찾으면 툫을 수확하는 어민들을 볼 수 있다. 관매도는 또한 우럭과 돔, 농어, 꽃게 등 어류가 풍부해 사계절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 문의 :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44-2181~2

■ **찾아가는 길** 관매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진도군 팽목항에서는 해진해운 (061-244-0803) 소속 페리호가 하루 한번 아침 9시 30분에 출항한다. 특송기간(7월 21일~8월 15일)에는 하루 6~7회로 증편된다. 소요시간 2시간. 목포항 여객터미널에서도 신광해운 (061-244-2391) 소속 신해호가 하루 한번 아침 8시 30분에 출항한다. 4시간 이상소요.



해달이 노니는 곳 영광 ‘송이도’

송이도는 섬에 소나무가 많고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속해 있다. 송이도에는 특이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모래등’이라는 것이 하나고, 멸종위기에 놓인 수달이 다른 하나. 모래등은 일종의 모래언덕이다. 섬 주민들은 그냥 ‘등’이라고 부른다. 길이는 낙월도에서 대·소노인도까지 8km에 달한다. 썰물 때면 피서객들이 송이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등까지 배를 타고 가서 별난 해수욕을 즐기곤 한다.

또한 맛조개와 더불어 백화가 널려 있는 밭. 특히 송이도 특산의 백하는 입에서 녹을 정도로 맛이 좋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몽돌해수욕장. 맨발로 다녀도 발이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선착장에서 섬 오른쪽 끝까지 2km 가까이 펼쳐져 있다. 송이해수욕장 동북쪽에는 바다 속에서 물이 솟는 ‘약샘’이 있다. 목마른 해수욕객들에게는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썰물이 되면 모습 드러낸다.

▶ 문의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061-350-5750~2

■ **찾아가는 길** 신해9호가 영광군 법성포 계마항에서 송이도까지 하루 한번 운항한다. 그나마 물때에 따라 출항시간이 바뀐다. 특송기간인 오는 15일부터는 하루 2회로 증편할 예정. 1시간 10분소요, 요금은 8200원. 특송기간에는 10% 할증된다.

인어의 섬 인천 ‘장봉도’

장봉도의 동쪽해안에 위치한 웅암해수욕장이 유명하다. 수심이 낮고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이 놀기에도 안성맞춤. 50m 폭의 백사장이 1km 정도 길게 늘어져 있다. 해수욕장 뒤에는 2~3백년 된 노송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준다. 썰물 때 드러난 갯벌에서는 낙지와 조개, 굴, 고동 등을 잡을 수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랑부리 백로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웅암해수욕장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한들해수욕장이 나타난다. 외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무척 조용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연인이나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해수욕장 주변의 해상도 운치를 더해준다. 그리고 장봉도에서 일몰이 가장 유명한 곳은 진촌해수욕장이 손꼽힌다. 야영이 가능하고 고운모래와 해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일품이다. 피서철에는 이곳에서 망둥어 낚시도 가능하다. 낚시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은 장봉1리 앞 선착장 해안이다. 여름과 가을에는 우럭과 놀래미가 많이 잡힌다. 초보자들도 쉽게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낚시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곳을 추천한다. 낚시가 가장 잘되는 때는 8월부터 10월까지다. 🌊

▶ 문의 : 웅진군 북도면 문화관광과 032-752-4008

■ **찾아가는 길** 승용차는 인천공항고속도로→요금소→2km 직진→삼목선착장 표지판 우회전→해안도로 4km 정도 직진→삼목사거리 우회전→500m 직진하면 삼목선착장. 장봉도까지는 삼목선착장에서 매시 10분에 한 시간 간격으로 배가 출항한다. 첫배는 아침 7시, 마지막 배는 오후 6시 10분. 금·토·일요일은 오후 7시 10분. 장봉도에서는 매시 정각에 출항. 세종해운 (032-884-4155)



1. 우이도 2. 관매도 3. 송이도 4. 장봉도

